

지역 광·융합업체 신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광산업진흥회, 美 '포토닉스 웨스트' 전시회 수출 상담 도와 을 13개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베트남 사무소 개설 추진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지역 다변화로 지역 광·융합 업체들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광융합산업 전시회인 '포토닉스 웨스트'에 참여, 한국관을 마련하고 국내 광통신 및 광학기기 부품기업들의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 시장에서의 판로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포토닉스 웨스트'는 전 세계 50여국에

서 광 관련 10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국제 행사다.

광산업진흥회는 광융합산업의 세계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다, 최근 5G 시장 및 사물인터넷(IOT) 융합 산업 분야 확대에 미국에서 새로운 시장이 조성되는 있는 점에 주목, 매년 전시회에 공동관을 꾸려 국내 업체들의 북미 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우리로·코셋·선일텔레콤·옵토마린·이상테크 등 광주지역 광통신 업체 등 국내 10개 업체가 참여해 1250만달러 상당의 상담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68만달

리 규모의 계약 체결이 예정된 상태다.

광산업진흥회는 구매력을 갖춘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기업체들의 수출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는 전략에 따라 올해에도 전년도보다 많은 13개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계획을 세워놓았다.

올해 참가를 계획중인 해외 전시·박람회는 ▲도쿄 라이팅 페어 ▲미국 OFC ▲러시아·CIS LED 융합수출 상담회 ▲중국 상해 레이저 포토닉스(이상 3월) ▲태국·베트남 에너지산업 포럼 및 수출상담회 ▲LED 테크 아시아(이상 5월) ▲러시아 국제조명박람회 ▲유럽 광통신 전시회(이상 9월) ▲인도네시아 광융합 수출상담회(10월) ▲미국 에너지 전시회 ▲독일·프랑스 라이더 시장개척단(11월) 등으로, 광산업진흥회는 국내 광·융합업체들의 상

품 수출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 등 해외 판로 확보 다각화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진흥회는 기업들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직영사무소 개설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진흥회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외 직영사무소를 개설, 국내 18개 광통신 부품업체와 광의료부품업체들의 제품을 전시·소개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베트남에도 해외 직영 사무소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광산업진흥회의 조종진 상근부회장은 "국내 광융합업체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광융합산업 지원·육성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광주·전남 사랑카드 3만좌 돌파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광주·전남 사랑카드(5종)가 출시 1년만인 지난 7일 기준으로 누적 판매 3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사랑카드는 지역생생 및 지역 점유율 강화를 위한 송종욱 은행장의 강한 의지를 담아 야심차게 출시한 카드다. 지난해 2월 개인고객상품 3종(광주·전남 사랑카드, 광주·전남 사랑 플래티늄카드, 광주·전남 사랑 Honors Card)과 같은 해 10월 출시된 기업고객상품 2종(광주·전남 사랑 Honors Card, 광주·전남 사랑 기업사랑 Card)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전남 사랑카드는 카드이용액의 일정금액을 광주·전남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고향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출향민들에게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개인고객상품은 이용금액의 0.5%, 기업고객상품은 이용금액의 0.1%가 기부되며, 광주은행은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약 1억 3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업고객상품인 광주·전남 사랑 기업사랑 Honors Card와 광주·전남 사랑 기업사랑 Card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여행 보험 서비스,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 등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비즈니스 활동에 최적화된 혜택을 탑재한 이 카드 역시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판매 3000좌를 기록하며 흥행중이다.

광주은행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광주·전남 사랑카드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게 사랑나눔을 실천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광주은행은 지역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들에게 더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님들과 동행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지리산서 '쏘울 부스터' 성공 다짐 결의대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임직원들이 쏘울의 3세대 모델인 '쏘울 부스터'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차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품질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9일 구례 지리산에서 박래석 공장장을 비롯, 현장관리장 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즈니스 목표 공감 결의대회'를 열고 쏘울 부스터의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장으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쏟기로 결의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해 비즈니스 목표를 '단단하고 믿음직한 젊은 공장'으로 정하고 ▲생산혁신 ▲균등품질 ▲최고안전 ▲노사신뢰 등 4가지 슬로건을 내걸어 적극 실천키로 했다. 특히 광주공장이 전량 생산하는 '쏘울 부스터'의 품질 관리에 힘써 '수출 효자 차종'인 쏘울의 영광을 재현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올해 광주공장이 모든 부분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삼성전자, 8K 해상도 초고화질 'QLED 8K' 대중화 나서

삼성전자가 올해 8K 해상도의 초고화질 QLED TV 신제품으로 'QLED 8K'의 대중화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경기도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2019년형 'QLED 8K' 기술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삼성의 'QLED 8K' TV는 3300만개의 화소를 가진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퀀텀닷 기술을 접목한 TV로, 최고 수준 밝

기와 명암비, 실제와 같은 깊이감 있는 색상, 넓은 시야각 등을 구현한 차세대 TV다.

올해 유럽을 시작으로 서남아, 중남미, 중동 등에서 '2019년형 QLED 8K' TV를 공개하고 전 세계 60여국을 통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는 게 삼성 계획이다.

삼성은 오는 12일 유럽에서 열리는 거래처 초청 행사 '삼성포럼'을 시작으로 서남아, 중남미, 중동 등 지역별로 '삼성포

럼'을 열고 'QLED 8K' TV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선보이는 제품은 기존 65·75·82·85인치 모델에 98·55인치를 추가한 총 6개 모델로, 삼성은 8K TV 시장을 확대, 프리미엄·초대형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조사기관(IHS)은 오는 2021년에는 60인치 이상 TV 시장의 10% 이상을 8K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유럽·한국·미국·러시아에 'QLED 8K' TV를 도입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보해양조 '천년에' 필리핀 진출

3월 2만3000명 수출

보해양조(대표이사임지선)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출시한 천년이 필리핀 시장에 진출한다. 국내 20~30대 젊은층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마니아층을 형성한 천년이가 해외 시장에 선보이게 되면서 주류(酒類)의 한류(韓流)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보해양조는 최근 필리핀 현지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오는 3월초부터 현지 소비자들에게 천년을 판매할 계획이다.

천년에는 보해양조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출시한 제품으로 '1000'을 뜻하는 '밀레니엄 소주'로 현지인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3월 중 1차적으로 필리핀에 수출되는 물량은 2만3000명 수준이다. 앞으로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수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년에는 필리핀 최대 규모인 'SM MALL'을 통해 판매 된다. SM



MALL은 필리핀을 대표하는 복합몰로 쇼핑시설은 물론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매년 큰 폭의 매출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한류 열풍이 뜨거워 필리핀에서는 한국 소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해양조는 동남아 시장 중에서도 필리핀에 우선적으로 천년을 판매해 왔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필리핀은 한류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인구가 1억명이 넘어 발전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며 "중국과 필리핀은 물론 베트남 업체들과도 수출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동남아 시장에서 보해양조가 만든 우수한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